141 Years of CHEJUNGWON 1885-2026 제중원 141 주년

창간
1981년 9월 14일

연세의료원소식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NEWS

제996호
2026년 11월 23일

발행인 금기창 편집인 윤영남 T 02.2228.1074~5 F 02.2227.7783 severance@yuhs.ac

세브란스병원, NCSI 16년 연속 1위

세브란스병원이 한국생산성본부 선정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 병원서비스업 부문에서 16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16년 동안 최정상 자리를 유지함으로써, 국가고객만족도조사 실시 이래 의료기관 중 최장기간 1위를 기록했다. 시상식은 1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세브란스병원은 환자만족도 향상을 위해 교직원이 참여하는 서포터즈 영상 제작과 보직자들이 직접 환자 곁을 찾아 현장과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진료 대기시간을 줄이고 실시간 대기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정비했다.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며 겪는 불편사항을 직접 경험해 정비하고 교직원들의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안제도를 강화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올해 간호사, 방사선사 등 교직원 27명 9개 팀을 구성해 '고객공감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했다.

서포터즈는 진료 현장에서 만난 환자 공감 스토리, 교직원 인터뷰, 의학정보, 원내 길찾기 등 병원 안팎 경험을 콘텐츠로 기획·제작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영상 305건, 텍스트 161건 등 총 466건의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세브란스 공식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병원장이 직접 환자 곁으로 보직자 라운딩

리더십이 직접 환자 곁을 찾는 현장 소통도 강화했다. 병원장과 간호·행정 관리자 등이 함께 정기적으로 입원 병동을 찾아 환자·보호자와 직접 만나는 보직자 라운딩을 진행했다. 병원장이 병상 곁에서 환자 이야기를 직접 듣고 위로와 공감을 전하며, 입원 생활 중 정서적 안정을 얻어 세브란스병원을 믿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다림의 불편을 덜고 감사를 나누는 외래 진료 환경

외래 환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진료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기 정보 안내도 강화했다. 진료 지연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상 대기시간을 자동으로 산출해 보여주는 신규 전광판 적용을 확대했다. 환자는 진료 순서와 예상 대기시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진료 시작 지연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환자를 맞이하는 교직원 마음을 살피는 Thank U Severance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추천 대상을 개인에서 부서로 확장했다. 서로를 인정하는 조직 문화가 교직원 만족으로, 다시 환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교직원이 직접 만들고 전하는 환자경험, 고객공감 서포터즈

현장에서 시작하는 환자경험 개선

환자경험팀은 올해 4월부터 부서 환자경험 라운딩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라운딩 핵심은 환자 동선 쉐도잉이다. 팀원들은 승강기나 각 병원 입구 등 환자가 병원에 처음 도착하는 지점에서 출발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나 고령 환자 입장에서 진료실과 검사실까지 이어지는 동선을 그대로 따라간다. 처음 온 환자가 길을 잃는지, 환자가 묻지 않아도 길 안내 사이니지를 이해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안내 사이니지와 대기 공간, 편의시설, 청결 상태 등을 꼼꼼히 살핀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는 본관 지하 주차장 출구 사이니지다. 세브란스병원은 본관 지하주차장 1~3층에 LED 방향유도 사이니지를 추가 설치해 운전 중에도 출구 방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직원 아이디어가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안제도도 정비했다. 세브란스병원은 기존 제안제도를 교직원의 목소리(VOE, Voice of Employee)를 담는 Innovation Hub로 개편해, 심사 과정 행정 부담을 덜고 제안이 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스타틴 · 에제티미브 초기 복합요법, LDL 콜레스테롤 목표 달성 앞당겨



김 병 극



이 상 협

목표 달성률 2배 이상 높여 Circulation(IF 41.3) 게재

의대 김병극·이상협 교수(내과학) 연구팀은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환자에서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초기 복합요법이 스타틴 단독요법에 비해 LDL 콜레스테롤 목표 달성률을 높이면서 임상 경과와 안전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7일 미국심장협회 학술대회(AHA)에서 주요 임상연구로 발표됐으며, 미국심장협회 학술지 '서큘레이션(Circulation, IF 41.3)'에 게재됐다.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환자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합병증과 사망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

최근에는 고위험 환자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더욱 적극적으로 낮추는 치료가 강조되고 있다. 연구팀은 Ez-PAVE 연구를 통해 LDL 콜레스테롤을 55mg/dL 미만으로 낮추는 강화 치료전략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해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JM)'에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강화된 LDL 콜레스테롤 목표를 추구할 때 치료 초기부터 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분석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국내 17개 병원에서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환자 3048명을 LDL 콜레스테롤 목표 55mg/dL 미만의 '강화 목표군'과 70mg/dL 미만으로 설정한 '기존 목표군'으로 무작위 배정했다. 동시에 환자들을 치료 시작부터 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함께 복용하는 '초기 복합요법군'과 스타틴 단독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단독요법군'으로 다시 무작위 배정했다.

분석 결과, 초기 복합요법은 LDL 콜레스테롤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목표를 55mg/dL 미만으로 설정한 강화 목표군에서 치료 1개월 후 목표에 도달한 환자는 초기 복합요법군에서 44.3%, 단독요법군에서는 18.3%로 초기 복합요법군 목표 달성률이 2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장기간 이어졌다. 강화 목표군 목표 달성률은 1년 시점에서 복합요법군 55.7%, 단독요법군 30.0%였으며, 3년 시점에는 각각 69.4%, 52.2%였다.

LDL 콜레스테롤 목표를 70mg/dL 미만으로 설정한 기존 목표군에서도 복합요법 목표 달성률이 높았다. 치료 1개월 후에는 복합요법군 71.6%, 단독요법군 47.1%였으며, 3년 시점에도 각각 73.2%, 63.1%로 나타났다. 3년간 측정한 LDL 콜레스테롤 중앙값 역시 강화 목표군에서 복합요법군 53mg/dL, 단독요법군 62mg/dL였고, 기존 목표군에서는 각각 63mg/dL와 70mg/dL였다.

스타틴 단독으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 상당수는 치료 과정에서 에제티미브가 추가로 필요했다. 강화 목표군에서는 단독요법 환자의 34.3%, 기존 목표군에서는 24.8%가 추적기간 중 에제티미브를 추가했다. 결국 스타틴 단독으로 치료를 시작해도 환자 약 30%는 LDL 콜레스테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에제티미브를 추가로 사용한 것이다.

반면 3년간 주요 임상경과에는 두 치료전략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심장성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뇌졸중, 불안정협심증 등 임상 사건 발생률은 복합요법군 8.5%, 단독요법군 7.9%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부작용 발생률도 비슷했다.

한편,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치료 효과는 기존 목표군 대비 강화된 목표군의 단독, 복합요법 두 치료전략 모두에서 일정하게 유지돼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 설정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첫 삽 용인세브란스병원이 16일 병원 내 공사 부지에서 암센터 착공식을 가졌다.(관련기사 2면)

용인, 암센터 착공식 개최

진료 공간 확충 및 병상 확대
지역 중증질환 치료 기반 강화

용인세브란스병원은 16일 암센터(교수연구동)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기창 의료원장, 박진오 용인세브란스병원장, 심호식·이종화·박용원·김은경 전임 병원장을 비롯해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용인정),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은 홍지만 기획관리실장 개회를 시작으로 기도, 내빈 소개, 경과보고, 박진오 병원장 인사말, 금기창 의료원장 기념사와 내빈 축사가 이어졌다. 성공적인 암센터 건립을 기원하는 시삽식도 진행됐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암센터는 지역 내 암 치료는 물론, 연구와 교육 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축 암센터는 기존 병원 응급진료센터 앞 주차장 부지에 지상 9층, 연면적 1만 4641㎡(약 4429평) 규모로 건립되며, 2028년 2월 준공이 목표다.

암센터 1, 2층은 암 진료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에 따라 기존 병원 외래 공간은 환자 진료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조성될 예정이다. 3층에는 강당·세미나실 등 교육시설이, 4~9층에는 교수연구실이 마련돼 의료진 연구 환경 개선과 함께 진료와 연구의 유기적인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병원동 교수연구실은 입원 병동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120여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중환자실 등 진료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암을 비롯한 중증 환자 입원 치료 기반을 강화한다.

이번 증축은 경기 남부 지역 암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용인 원삼면과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및 생활 인프라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중장기적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내 암·중증질환 진료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병원은 암 환자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현재 시행 중인 '암 환자 검사 패스트트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CT·MRI·복부초음파·PET CT 등 주요 영상·핵의학 검사 우선 예약 시스템을 마련한다. 외과·혈액종양내과·방사선종양학과·영상의학과·병리과 등 관련 진료과 전문의가 치료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다학제 진료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발성 폐섬유증 급성악화, 고용량 펄스 스테로이드 치료요법 추가 생존 이득 없어

국내 8개 병원 100명 분석
28일·90일 사망률 차이 없어



의대 박무석 교수(내과학)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호흡기내과 김상하 교수, 미국 워싱턴대학교 가네시 라구(Ganesh Raghu) 교수, 인하대병원 호흡기내과 김혜수 교수와 함께 특발성 폐섬유증 급성악화 환자에게 사용하는 고용량 펄스 스테로이드 요법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보다 뚜렷한 생존 이득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호흡기·중환자의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AJRCCM, IF 21.7)'에 게재됐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폐 조직이 점차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급성악화가 발생하면 짧은 기간에 호흡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사망 위험도 높아진다.

급성악화 치료에는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 단기간 초고용량을 투여하는 펄스요법이 널리 사용돼 왔지만, 낮은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보다 생존율을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

펄스요법은 체중당 스테로이드 10mg을 3일간 투여한 뒤 체중 1kg당 1mg 수준으로 용량을 줄여 서서히 감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보다 초기 투여량이 약 10배 많다. 두 치료법 모두 특발성 폐섬유증 급성악화에 사용돼 왔지만 적정 용량과 투여 방법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

연구팀은 두 스테로이드 투여 전략을 직접 비교하는 다기관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세계 최초로 진행했다. 2021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특발성 폐섬유증 급성악화로 입원한 성인 100명을 펄스요법군 51명과 비펄스요법군 49명으로 무작위 배정했다. 펄스요법군에는 첫 3일간 대용량 메틸프레드니솔론을 투여한 뒤 비펄스요법군과 같은 용량으로 감량했고, 비펄스요법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용량을 첫 7일간 투여한 뒤 서서히 감량했다.

28일 사망률은 펄스요법군 10%, 비펄스요법군 14.6%였으며, 90일 사망률은 각각 24.5%와 29.8%였다. 펄스요법군 사망률이 수치상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환자 초기 산소화 상태 등을 고려한 분석에서도 펄스요법의 추가적인 생존 이득은 확인할 수 없었다.

두경부 로봇수술 5000례 달성 기념 심포지엄 개최

2008년 국내 최초 시행 18년만
두경부 전 영역으로 적용 확대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가 2일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에서 두경부 로봇수술 5000례 달성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두경부는 좁은 공간에 호흡·삼킴·발성을 담당하는 기관과 주요 혈관·신경이 밀집해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부위다. 로봇수술은 입안이나 귀 뒤 등 눈에 띄지 않는 경로로 접근해 흉터를 줄이고 기능을 보존할 수 있어 세브란스병원은 두경부 전 영역으로 확장해 적용해 왔다.

수술 부위별로는 구인두 1213건, 갑상선 1180건, 침샘 957건, 하인두·후두 627건, 구강 452건 등이다. 최근에는 단일공(SP) 로봇을 도입해 기존에 접근이 어려웠던 부위까지 수술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두경부암과 갑상선질환 로봇수술 경험과 수술 후 재건, 재활까지 폭넓게 다뤄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의대 심남석 교수(이비인후과학)가 후인두 림프절 전이에 대한 표적 로봇 절제술과 심부 공간 접근법을 발표했다. 의대박영민 교수(강남 이비인후과)는 단일공 로봇을 이용한 하인두·후두암 절제술 기법과 경험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의대 허영균 교수(용인 이비인후과)가 로봇 경부림프절 절제술 주의점과 잠재적 문제점을, 의대 이규인 교수(이비인후과학)가 단일공 로봇을 이용한 경구강 갑상선·경



부림프절 절제술을 각각 발표했다. 의대 김주현 교수(용인 이비인후과)는 경구강 로봇수술을 활용한 유리피판 삽입·고정 전략을 발표했다. 삼성서울병원 최나연 교수도 액와를 통한 단일공 로봇 갑상선수술 술기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의대 홍종원 교수(성형외과학)가 두경부암 로봇수술 후 재건 전략을, 치대 김동욱 교수(구강악안면외과학)는 턱 재건과 포괄적 재활을 설명했다. 이어 의대 김다희 교수(이비인후과학)가 단일공 로봇수술이 두경부 수술에 가져온 변화를 소개했다.

행사는 의대 고윤우 이비인후과학교실 주임교수가 로봇수술 5000례 달성 경과를 보고하며 마무리됐다.

암 혁신기술 공동기술설명회 성료

산·학·연·병 협력 장 마련
암 치료·진단·예방 분야
혁신 기술 선보이는 등
기술사업화 협력 확대

의료원이 고려대학교 의료원, 국립암센터와 지난달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 공동기술설명회(Cancer Innovation Tech Forum)'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기술설명회에는 이상철 의과학연구처장, 김학준 고려대학교 의학연구처장, 이건국 국립암센터 연구소장을 비롯한 각 기관 주요 보직자와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H+TLO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립암센터가 새롭게 합류해 협력 폭을 넓혔다.

특히 올해는 행사 주제를 'Cancer Innovation Tech Forum'으로 정하고, 글로벌 암 연구와 신약 개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혁신 연구성과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기술 발표에서는 표적항암제, 차세대 단백질 분해 기술(PROTAC), 마이



크로바이옴 기반 위암 치료·예방 기술, 의료영상 분석, 면역항암 기술 등 세 기관이 보유한 암 분야 혁신기술 총 6건이 소개돼 산업계 관심을 모았다.

이날 JW중외제약 등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와 연구자 간 1대1 파트너링 미팅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공동연구와 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사업화 가능성을 논의하며 산·학·연·병 협력 기회를 확대했다.

면역항암 후 진행된 자궁내막암, 새 경구 표적치료 가능성 확인



의대 이정윤 교수(산부인과학) 연구팀은 새로운 경구 항암제 E7386과 표적항암제 렌바티닙을 함께 투여한 결과, 진행성 자궁내막암 환자 36.7%에서 종양이 일정 기준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본·미국 12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글로벌 다기관 초기(1b/2상) 임상시험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이클리니컬메디슨(eClinicalMedicine, IF 12.8)' 최신호에 게재됐다.

최근 진행성·재발성 자궁내막암에서는 항암화학요법과 면역항암제를 함께 사용하는 치료가 주요 1차 치료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면역항암제 치료 이후에도 암이 진행하거나 재발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후속 치료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연구팀은 E7386을 종양 혈관 생성과 암 성장에 관여하는 여러 신호전달 경로를 억제하는 경구 표적항암제 렌바티닙과 함께 투여해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했다. E7386은 암 성장과 치료 저항성에 관여하는 베타카테닌과 CBP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경구 항암제다.

이번 연구에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PD-(L)1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고 진행성·절제 불가능 또는 재발성 자궁내막암 환자 30명이 참여했다. 대상자 중 25명(83.3%)은 이미 2~3차례 전신 치료를 받았고, 16명(53.3%)은 렌바티닙 치료 경험이 있었다. 환자들은 E7386 120mg을 하루 2회, 렌바티닙을 하루 1회 투여받았다.

그 결과, 전체 환자 30명 중 11명에서 종양이 일정 기준 이상 감소해 객관적 반응률(ORR)은 36.7%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종양이 영상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완전 반응(CR)을, 10명은 종양 크기가 감소한 부분 반응(PR)을 보였다.

종양이 감소하거나 일정 기간 진행하지 않은 환자를 포함한 질병 조절률(DCR)은 70.0%, 일정 기간 이상 치료 효과를 얻은 환자를 나타내는 임상적 혜택률(CBR)은 56.7%였다. 치료에 반응한 환자에서 효과가 유지된 반응지속기간(DOR) 중앙값은 9.1개월이었으며, 전체 환자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은 5.5개월이었다.

특히 이전에 렌바티닙을 사용하지 않았던 환자 14명 중 8명에서 객관적 종양반응이 확인돼 객관적 반응률은 57.1%에 달했다. 이 환자군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10.8개월이었다. 렌바티닙을 이미 사용한 경험이 있는 환자 16명에서도 3명이 부분 반응을 보여 객관적 반응률 18.8%를 기록했다.

뇌졸중 재발 방지, LDL 콜레스테롤 감소 폭도 중요



백 민 렬



유 준 상



김 진 권



전 지 민

의대 백민렬·유준상·김진권 교수(용인 신경과), 전지민 박사과정생 연구팀은 허혈성 뇌졸중(뇌경색) 환자에서 LDL 콜레스테롤의 목표 수치 달성뿐 아니라 발생 전 대비 감소 폭도 향후 재발·심근경색·사망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뇌경색 재발과 심근경색 예방에는 LDL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치료 목표를 70mg/dL 미만의 절대적 목표와 치료 전 대비 50% 이상 감소의 상대적 목표로 구분한다. 미국심장학회·미국심장협회(ACC/AHA)와 유럽심장학회·유럽동맥경화학회(ESC/EAS)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은 심뇌혈관질환 환자에게 이 두 가지 목표를 함께 권고하는 반면, 미국뇌졸중협회(ASA)와 유럽뇌졸중기구(ESO)의 뇌졸중 진료지침은 절대적 목표만 강조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뉴롤로지(Neurology, IF 10.8)'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급성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 중, 뇌졸중 발생 전 콜레스테롤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LDL콜레스테롤 수치와 뇌졸중 이후 측정한 수치가 모두 확인되는 8만 9414명을 대상으로 LDL 콜레스테롤의 감소 폭과 재발 및 심혈관 사건 위험과 관련성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LDL 콜레스테롤 검사 수치를 뇌졸중 발생 전 대비 '50% 이상 감소 여부'와 '70mg/dL 미만 도달 여부'에 따라 네 그룹으로 구분하고, 이들에서 뇌졸중 재발·심근경색·사망 위험을 비교했다.

뇌졸중 이후 LDL 콜레스테롤을 50% 이상 낮춘 환자는 약 30%, 70mg/dL 미만까지 달성한 환자는 약 25%에 그쳤다.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수치가 50% 이상 감소했지만 70mg/dL 미만에는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뇌졸중 재발·심근경색·사망을 종합한 위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70mg/dL 미만에 도달했더라도 감소 폭이 50%에 못 미친 경우는 복합 위험이 약 12% 높았고,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한 경우는 약 28% 높았다.

초고위험군에 권고하는 엄격한 수치 기준(55mg/dL 미만)을 적용한 추가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LDL 콜레스테롤 감소율이 10% 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복합 위험은 약 6% 낮았다.

김모임간호학연구소, 국제 심포지엄 개최

간호대학 김모임간호학연구소는 5일 미국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2026 미국노년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역사회 거주 노인 건강관리 과제 해결: 혁신과 통합돌봄'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는 한국, 일본, 홍콩 연구자들이 지역사회 거주 노인 건강관리와 통합돌봄을 위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심포지엄은 조은희 김모임간호학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간호대학 이향규 교수와 강바다 교수, 홍콩폴리텍대학교 안젤라 Y. M. 렁 교수, 일본 도쿄대학교 아사 이나가키-아사노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지역사회 노인이 직면한 복합적인 건강·돌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성과가 소개됐다. 또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간호대학 안나 비버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각 연구 의의와 지역사회 적용 가능성을 국제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학술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치대, 학생 축제 '연아제' 개최

치과대학 학생회가 6일 학생 축제 '연아제'를 개최했다.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는 1부 행사에는 테니스부, 연극부, 산악부, 탁구부, 축구부, 미술부 등 총 19개 동아리가 참여해 각 동아리 특색을 살린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학생회는 동아리별 부스에서 미션을 수행한 학생들에게 획득 스탬프 수에 따라 한정선 찹쌀떡과 연아제 에코백, 선물세트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저녁에 열린 2부 행사에서는 학생 250여명이 함께 만찬을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모든 동아리 부스를 방문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행사도 마련됐다. 행사장인 치대 1층 로비에는 포토부스가 설치돼 학생들이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정영수 치대학장은 "연아제는 학생들이 학업에서 잠시 벗어나 청춘을 만끽하는 자리"라며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11회 의·치·간 아이디어 페어 개최



의·치·간호대 학생 17팀 참가 아이디어 발굴·융합 성과 공유

제11회 '의·치·간 아이디어 페어'가 9일 치과대학병원 강당에서 열렸다.

올해 치대 주관으로 열린 아이디어 페어는 의·치·간호대학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는 학생회 연합 행사다.

행사에는 정영수 치대학장을 비롯해 의·치·간호대학 주요 보직자와 심사위원, 학생 등이 참석했다. 예선에 참가한 17팀 중 6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각 대학 교수와 기술사업팀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평가(70%)와 학생 청중평가단 투표(30%)를 합산해 수상팀을 선정했다. 행사 기획과 운영은 의·치·간호대 학생회가 공동으로 맡았다.

대상은 '하티: 퇴원 후 30일, 병원 밖 공백을 잇는 심부전 환자 AI 팔로업 에이전트'를 발표한 세브란스 Innovators 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저강도 펄스 초음파 기반 비침습적 마우스피스형 홈케어 디바이스'를 제안한 COZY 팀과 'N2SF 기반 연구 목적 맞춤형 임상기록 가명처리 및 안전 반출 시스템'을 제안한 새물길팀에 돌아갔다.

우수상은 '간호 미완료 처치 리마인드 시스템'을 발표한 Re-TAG팀, '창상관리를 위한 개폐형 점검창 기반 맞춤형 캐스트'를 발표한 Cast-a-glance 팀, '야간 낙상 예방과 정확한 배설량 측정을 위한 응고형 간이변기'를 제안한 야뇨 응고단팀이 각각 받았다.

1주년 민윤기치료센터, '캠프 온 더 스펙트럼' 열어

환자와 가족 등 100여명 참여
음악·체육 등 프로그램 다양
마인드 밴드 참여해 연주도
밴드, 내달 12일 콘서트 열어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민윤기치료센터가 7일 경기도 양평에서 1박 2일 가족 행사 '캠프 온 더 스펙트럼(Camp on the Spectrum)'을 열었다.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비롯해 의료진, 치료사, 자원봉사자 등 총 104명이 참여했다.

올해 두 번째, 개소 1주년(9월 30일)을 맞아 진행된 행사는 참여 대상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음악 연주와 농구 등 특수체육 활동을 비롯해 청소년 정서 조절 프로그램, 부모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음악 기반 사회성 치료인 마인드 프로그램 참가자 7명과 그 가족들만 대상으로 했었다.

이번 캠프는 아동·청소년이 가족, 또래,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고, 음악과 체육 등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참여와 자립 역량을 높이도록 기획됐다. 장애 아동·청소년과 형제자매가 유대감을 높일 기회도 제공했다.

이날 진행된 농구 기반 특수체육 프로그램 '마인드 플레이'에서는 참여 아동·청소년들이 농구, 플로어 컬링 등 다양한 체육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프렌치파파(타미 리)'는 특별 강연으로 자폐스펙트럼 자녀와 함께한 일상을 대중과 공유하며 경험한 긍정적인 변화와 가족 성장 이야기를 전해 참가자들에게 공감과 희망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센터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한 부모 교육과, 형제자매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특별히 이번 캠프에는 마인드 밴드도 참여해 참가자들 앞에서 그동안 연습해 온 연주를 선보였다. 마인드 밴드는 민윤기치료센터 프로그램을 마친 아동·청소년들이 연주와 공연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하는 연주부다. 마인드 밴드는 다음 달 12일 오후 5시 1500석 규모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제2회 연주회를 연다.

용인, 기부자 월 제막식

한재현 대흥엠엔티 회장 부부 기증
기부자 예우·나눔 문화 확산 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은 11일 병원 1층 로비에서 기부자 뜻을 기리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부자 월(Donor Wall)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진오 용인세브란스병원장과 병원 발전자문위원, 주요 보직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기부자 월을 기증한 한재현 ㈜대흥엠엔티 회장과 부인 이영은 씨에게 감사패 전달식도 마련됐다.

기부자 월에는 병원 발전에 마음을 보탠 기부자들 이름을 새겼다. 소액 기부자들 이름을 소개하는 LED 전광판과 누구나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키오스크도 함께 설치했다.

기부자 월 한쪽 동판에는 1885년 제중원부터 1904년 건립된 서울역 앞 세브란스병원, 1983년 개원한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이후 증축된 모습, 2020년 신축 이전 개원한 현재 병원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건물 모습을 각인했다.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장 9절)는 성경 구절도 동판에 함께 새겼다. 이는 한국 근대 의료와 의학교육 기틀을 닦고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주도한 올리버 R. 에비슨 박사가 즐겨 인용한 구절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료로 이웃 사랑을 실천한 에비슨 박사 신념과 세브란스 나눔 정신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박진오 병원장은 "이번 기부자 월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후원자들 뜻을 기리는 동시에, 누구나 일상에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라며 "후원자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잊지 않고 지역주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으로서 본분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협진병·의원 세미나



세브란스병원 진료협력센터가 4일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에서 '연결과 동행, 지속 가능한 협력을 향해'를 주제로 2026 세브란스병원 협진병·의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이동원 진료협력센터 소장 인사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 정혜정 간호사의 '상처관리 및 욕창관리' 강의가 이뤄졌다. 이어 검단탑병원 진료협력팀 김지연 팀장이 '포괄 2차 종합병원 운영 현황 및 진료협력 실적'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권유진 교수(의대 가정의학)가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등장! 건강한 체중관리 전략'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동원 소장은 "앞으로도 협력병원들과 교육,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최상의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협력병원 담당자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주제와 건강 지식 등에 대한 다양한 강의로 세미나가 구성돼 있어 실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강남, 암병원 심포지엄



강남세브란스 암병원이 13일 병원 대강당에서 '2026 강남세브란스 암병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신 암진료와 환자경험 향상을 위한 통합 교육'을 주제로 급변하는 암 치료 최신지견을 짚어보고, 환자 중심 포괄적인 암 진료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세션은 의대 정희철 교수(강남종양내과)가 좌장을 맡아 '암 치료 새로운 변화와 환자 중심 암 진료'를 주제로 진행됐다. ▲암 치료 이후 삶-Cancer Survivorship(의대 박지수 교수(내과학)) ▲암환자에서 놓치면 안 되는 응급상황(의대 이서영 교수(강남 종양내과)) ▲암 치료는 어디까지 왔나?-정밀의료와 바이오마커의 시대(의대 홍문기 교수(용인 종양내과)) 강연이 이어졌다.

2부 세션에서는 정준 암병원장이 좌장을 맡아 '2026년 최신 암 치료 트렌드'를 집중 조명했다. ▲간암, 알면 길이 보인다(의대 이정일 교수(강남 소화기내과)) ▲자궁내막암에서 진단과 치료 최신지견(의대 이유경 교수(강남 산부인과)) ▲비뇨기암 수술의 진화 : 최소침습수술에서 장기보존까지(의대 김도경 교수(강남 비뇨의학과)) ▲미분화 갑상선암 치료(의대 김석모 교수(강남 갑상선내분비외과)) 등 주요 암종별 최신 진단 및 치료 전략이 발표됐다.

강남 호흡재활센터, 희귀난치성 신경근육질환 심포지엄 및 멘토링 프로그램 성료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가 지난달 30일 병원 중강당에서 '희귀난치성 신경근육질환 환우와 보호자를 위한 심포지엄' 및 환우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보조기기 지원제도부터 최근 AI 기술, 실전 재활 운동까지 '재활보조기구'를 핵심 주제로 다뤘다.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안상현 팀장이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사업과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Aicontrol 박준형 대표가 'AI 시대 보조기기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박 대표는 일반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환우들을 위해 립 마우스, 헤드셋형 마우스 등 특수 마우스 체험존을 운영해 참석자들 눈길을 끌었다. 이어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팀 이규완 팀장이 '희귀난치성 신경근육질환 환우에게 도움이 되는 재활 운동'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올해에는 질환으로 인해 학업과 진로에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내일을 여는 역량, 함께 만드는 커리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환우들의 원활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멘토로 나선 선우태용 씨는 1999년 얼굴어깨팔성 근디스트로피를 진단받은 이후, 꾸준히 학업과 직장생활을 이어왔다.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우태용 씨는 자신이 직접 겪어온 경험과 함께 환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제도를 공유하며 환우들에게 힘을 보탰다.

의료원, 교원창업 기업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

'2026 서울투자서밋' 바이오·헬스케어 세션 주관

의료원 의과학연구처가 서울앵커사업과 연계해 지난달 19일부터 이틀간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2026 서울투자서밋'에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투자유치(IR) 세션을 주관했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국내 유망 혁신기업과 글로벌 투자자를 연결하고자 마련됐다. 의료원은 지난 5월 서울투자진흥재단과 체결한 업무 협력기관 자격으로 참여했다.

'서울에서 시작되는 바이오헬스케어 혁신'을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서울앵커사업 책임을 맡은 의대 정재호 교수(외과학)가 의료원 개방형 혁신 플랫폼과 교원창업 기업을 소개했다. 이어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이 국내 바이오 기업 경쟁력과 투자 기준을 논의했다.

기업별 투자유치 발표에는 ▲의대 김현석 교수(의생명과학부) 체크메이트테라퓨틱스(위암 치료제) ▲의대 백우열 교수(성형외과학) 플코스킨(유방 재건용 의료기기) ▲의대 심태보 교수(의생명과학부) 매직불릿테라퓨틱스(표적항암제) ▲의대 윤상선 교수(미생물학) 바이오미(다제내성균 감염 치료제) ▲의대 윤영섭 교수(의생명과학부) 카디스바이오(심혈관질환 세포치료제) ▲의대 조병철 교수(내과학) 다안바이오테라퓨틱스(면역세포치료제) ▲의대 최병욱 교수(영상의학) 팬토믹스(AI 심혈관질환 진단 솔루션)가 참여했다. 발표 후에는 글로벌 투자자들과 교류하며 투자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간호대, 의료선교의 달 기념 특강 개최

장순복 연세대 명예교수 캄보디아 간호선교 경험 공유

간호대가 의료선교의 달을 맞아 6일 '2026 간호선교 Brown Bag 특강'을 개최했다.

간호대학생과 대학원생, 간호사, 교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간호 전문성을 통한 선교 의미와 나눔·섬김 가치를 되새겼다.

이번 특강에는 캄보디아에서 간호선교사로 활동한 장순복 연세대 명예교수가 연자로 나서 '나의 인생 삼모작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강연했다. 장순복 명예교수는 간호사와 간호교육자로서 걸어온 삶을 돌아보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에서 실천한 간호선교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라이프대학, 헤브론선교병원, 캄보디아 국립대학 국제간호학사과정에서의 활동을 소개하며 간호선교가 환자 진료를 넘어 현지 간호인력 양성과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간호대학 120주년 기념 도서 '간호선교로 세계를 잇다'를 소개하며 연세 간호 선교 역사와 정신을 되짚었다. 이어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나눔'과 '변화' 의미를 설명하고,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이웃을 섬기고 변화를 이끄는 데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강남, 정밀의료센터 심포지엄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29일 병원 2동 3층 대강당에서 '2026 정밀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정밀의료센터와 연구중심병원 첨단오믹스 기술허브가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다중오믹스에서 임상 적용까지'를 주제로 최첨단 오믹스 연구 성과를 실제 진료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첨단 정밀의료 미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최신 연구 결과와 임상 사례 발표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밀의료의 임상 적용 '을 주제로 의대 이현주 교수(강남 소아청소년과)가 좌장을 맡았다. 이어 ▲유전성 망막 질환을 위한 유전자 치료 기반 정밀의료(의대 이준원 교수(강남 안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디지털 정밀의료: 맞춤형 치료를 위한 AI 활용(의대 김은주 교수(강남 정신건강의학과)) ▲정밀의료와 마이크로바이옴(의대 최민혁 교수(강남 진단검사의학과)) 등 디지털 기술과 유전자·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결합한 최신 임상 접근법을 조망했다.

의대 빈진혁 교수(의생명시스템정보학)가 좌장을 맡은 두 번째 세션에서는 '첨단 오믹스 기법을 통한 암 해독 '이 주제로 다뤄졌다. ▲공간 오믹스를 통한 신경교종 진화 해독(박정원 가톨릭대 교수) ▲롱리드 전사체학 기반 췌장암 분자 아형 정의(박찬이 국립암센터 연구원) 등 난치성 암 발병 기전과 치료 표적 발굴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제12회 세브란스 통일의 밤 성료

제중원보건개발원 통일보건의료센터가 3일 백양누리에서 제12회 세브란스 통일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3년간 센터 주요 활동과 성과를 돌아보고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의료원 교직원을 비롯해 통일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와 연구자, 후원자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양인철 원목실장 개회기도를 시작으로 염준섭 제중원보건개발원장 개회사와 최재영 의과대학장 축사로 이어졌다. 김소윤 전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은 지난 13년간 센터가 추진해 온 연구·교육·협력 활동과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서 더 소리 앙상블 축하 공연이 펼쳐졌으며, 전우택 연세대 명예교수는 '세브란스, 역사, 사명'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성낙 가천대학교 명예총장도 통일보건의료 미래와 관련한 메시지를 전했다.

의대 최원규 교수(인문사회의학)는 '한반도 건강공동체 연구소 비전 및 향후 사업'을 주제로 발표하며 향후 연구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의대 최재영 교수 CSI 아시아·태평양 평생공로상



의대 최재영 교수(소아청소년과학)가 최근 열린 'CSI 아시아·태평양 2026'에서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CSI(Catheter Interventions in Congenital, Structural and Valvular Heart Disease)는 선천성·구조적 심장질환 중재시술 분야 세계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대회다. 1996년 시작해 최신 중재시술 기술과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학술교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평생공로상은 심혈관 중재시술 분야에서 탁월한 임상·학술 성과를 쌓고 국제 중재심장학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의료진에게 수여된다.

최 교수는 선천성 심장질환 중재적 치료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의 경피적 중재시술 발전과 새로운 치료기술 도입에 기여해 왔다. 또한 국내외 학술 교류와 후학 양성에도 힘쓰며 선천성 심장질환 중재치료 분야 발전을 이끌어 왔다.

최재영 교수는 "이번 수상은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 치료를 위해 같이 노력해 온 동료들과 함께 이룬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국내외 의료진과 임상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며 선천성 심장질환 중재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약물안전캠페인 개최

세브란스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17일부터 이틀간 본관 3층에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약물안전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이번 캠페인은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과 부작용 대처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조영제 안전관리, 항암제 부작용 대처법,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등에 관한 안내물을 배포했다. 또 조영제와 항암제 부작용 대처법, 중증 피부 유해반응 원인 등을 소개하는 포스터를 전시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의약품 부작용 상담도 진행했다.

이재현 센터장은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과 부작용 대처 방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 받아 2006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감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윤경주 여사 10만달러

의대 신축기부금

고 윤인배 의대동창 배우자 윤경주 여사가 최근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10만달러를 후원했다.

2021년 의과대학 신축을 위해 100만달러를 약정하고 5차에 걸쳐 80만달러를 전한 바 있는 윤경주 여사는 이번 후원으로 총 약 90만달러를 전했다.

한편, 윤인배 박사는 1961년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이번 기부를 통해 윤인배 박사와 윤경주 여사 누적 기부총액은 63억 2000만원을 넘어섰다.



김성학 J&S Packaging 대표 1억원

어린이병원 발달장애인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발전기부금

김성학 J&S Packaging 대표가 최근 어린이병원 발달장애인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발전기부금으로 1억원을 후원했다.

김성학 대표는 "발달장애 아동 치료는 아이 한 명을 넘어 가족 전체 삶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문적인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번 후원이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뜻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학 대표는 이번 후원을 통해 의료원과 소중한 첫 인연을 맺었다.

한상원 연세대 명예교수 1억원



의과대학 신축기부금(5020프로젝트)

한상원 연세대 명예교수(의대 82년 졸)가 최근 의과대학 신축기부금(5020프로젝트)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한상원 명예교수는 신축 의과대학 내 비뇨의학교실 역사관 조성을 응원하며 후원을 진행했다.

한편, 한상원 명예교수는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어린이병원 소아비뇨의학과 발전기부금, 세브란스 간호국 발전기부금 등 꾸준한 의료원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정웅 케이프혼 대표 1억원

완화의료센터 발전기부금(빛담)



이정웅 ㈜케이프혼 대표가 최근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발전기부금(빛담)으로 1억원을 전했다.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정웅 대표, 배우자 고은이 후원자와 금기창 의료원장, 이상길 연세암병원장, 윤영남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정웅 대표는 "평소 세브란스에 후원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를 통해 그 뜻을 실천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치료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는 완화의료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후원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오랫동안 품어오신 나눔의 뜻을 의료원에 실천해주신 이정웅 대표님과 고은이 후원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후원금이 완화의료가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재외 동창 기부

재외 동창들의 기부 소식은 미주동창회와 UB(United Board)를 통해 전달되는 기부금으로 별도 코너를 마련해 소개합니다.

의과대학

- **이민우 미주동창**(의대 70년 졸) 신축기부금 $50000
- **정규식 미주동창**(의대 71년 졸) 신축기부금 $35000

권인욱 피유시스 회장 1억원

연세암병원 발전기부금



권인욱 ㈜피유시스 회장이 최근 연세암병원 발전기부금으로 1억원을 전했다.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권인욱 회장과 금기창 의료원장, 이상길 연세암병원장, 윤영남 대외협력처장, 김진아 발전기금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권인욱 회장은 "암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께서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며 "이번 후원이 연세암병원 발전과 이상길 병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진 분들께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소중한 뜻을 전해주신 권인욱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귀한 마음이 암병원 진료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고,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와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식 김포상공회의소 회장 1억원



의대 신축기부금 이비인후과학교실 발전기부금

이규식 김포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8000만원과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발전기부금(이원상 추모기금) 2000만원을 전했다.

이규식 회장은 "최재영 의대학장님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신축을 위해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신 모습을 보며 지속적으로 뜻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 후원이 신축 의과대학의 성공적인 건립과 연세의료원의 더 큰 도약으로 이어지는 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원 집중거액모금캠페인 The Great Future 미래발전위원 이규식 회장 누적 후원금은 5억원에 이르렀다.

박호전 삼덕유화 회장 1억원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빛담) 의료원, 어린이병원 발전기부금



박호전 삼덕유화㈜ 회장이 최근 1억원을 후원했다.

기부금은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발전기부금(빛담) 8000만원, 의료원 발전기부금 1000만원, 어린이병원 발전기부금 1000만원 등이다.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박호전 회장 아들 박희용 대표와 금기창 의료원장, 이상길 연세암병원장, 윤영남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했다.

박희용 대표는 "환자들에게는 치료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돌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완화의료센터와 어린이병원을 비롯한 의료원 여러 진료 현장에서 이번 나눔이 뜻깊게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폭넓게 마음을 나눠주신 박호전 회장님과 아들 박희용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신 뜻을 잘 이어 환자들이 치료 전 과정에서 존중받고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1000~3000만원 기부

의과대학
- **김호 후원자** 유일한폐암연구소 연구기부금 2000만원
- **이동훈 이동훈연세정형외과의원 원장**(의대 97년 졸) 정형외과학교실 발전기부금 1000만원

치과대학
- **강명신 강원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치대 92년 졸) 예방치과학교실 발전기부금 1000만원
- **손정일 연세치과의원 원장**(치대 95년 졸) 예방치과학교실 발전기부금 1000만원
- **이영순 목동예치과병원 원장**(치대 90년 졸) 발전기부금-110주년 미래기금 1000만원

보건대학원
- **보건대학원 김치년 교수** 발전기부금(2010프로젝트) 1000만원
- **융합보건의료대학원 박소희 교수** 발전기부금(2010프로젝트) 1000만원
- **융합보건의료대학원 장석용 교수** 발전기부금(2010프로젝트) 1000만원

세브란스병원
- **서어진 프로골퍼** 사회사업후원금 1000만원
- **이준영 후원자** 사회사업후원금 1000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 **김성준 (주)유밀가 회장** 연구발전기부금 2000만원
- **김시홍 동문**(의대 06년 졸) 이비인후과 발전기부금 1000만원
- **이동훈 이동훈연세정형외과의원 원장**(의대 97년 졸) 정형외과 발전기부금 1000만원

연세암병원
- **김아영 후원자** 완화의료센터 발전기부금-소아청소년 1000만원

심장혈관병원
- **손종문 (주)토치테크글로벌 대표** 발전기부금 1000만원

의료선교센터
- **온누리교회** 해외선교사 건강지원 후원금 1000만원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사로 전하지 못하는 기부 내용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동문회 소식

의대 총동문회, 9차 실행이사회의

의과대학 총동문회는 지난달 21일 의대 회의실에서 제9차 실행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총동문회는 내년 1월 23일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내년 7월 3일에는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제1회 '세브란스 동아리의 밤'을 개최해 동문과 재학생, 가족이 함께하는 새로운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실행이사회에서는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회와의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총동문회 홈페이지와 동창회보에 미주동창회 소식을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총동문회 홈페이지도 이용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개편했다. 특히 홈페이지 주요 메뉴에 동아리 소개 항목을 추가하고, 각 동아리의 연혁과 회원 현황, 주요 활동 등을 게시하기로 했다. 역사·문서위원회는 과거 교우회보의 한글화 작업을 추진하고, 동아리별 현황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2027년도 총동문회 달력은 이달 제작할 예정이다. 광혜장학회는 장학금 수혜자들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할 계획이며, 신촌과 원주에서 각각 2명씩 총 4명의 장학생을 선정해 뉴스레터에 수록하기로 했다. 또한 기부자 예우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세브란스 나눔 이야기'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의대 총동문회 짐바브웨 의료연수생 환영 만찬

의과대학 총동문회는 6일 짐바브웨 의료연수생들과 만찬을 갖고 국제 의료교류와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이재범 의대 총동문회장, 박진용 전 의료선교위원장, 김문규 의료선교위원장이 참석해 연수생들을 격려했다.

의료선교위원회는 앞서 10월부터 12월까지 짐바브웨 소아비뇨의학과 의사 조세핀 위페이 치가바티아-쿠사노(Josephine Wepei Chigabatia-Kusano)의 Severance Alumni International Fellowship 연수를 계획했었다.

이재범 회장은 이날 연수생들에게 만찬을 베풀며 따뜻한 환대의 뜻을 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세브란스의 의료선교 정신을 되새기고, 해외 의료진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적 유대 강화 의지를 다졌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1천만원 미만 기부건(재직 교직원 급여공제, CMS제외) (2026.1.1~1.31)

의료원(발전기부금)
강준영 김경아,이은사,이만천 김남규 김대환 김영철 김은실 김정화 김태석 남달리 노주환 문한경 민채원 박민철 성실교회 신규호 염동석 우경명 유남순 윤유빈 이규래 이상미 이설희 이치혁 이혜정 장대진 장선아 정원근 정혜미 조상준 최모경 홍윤서

의과대학(발전기부금, 서클지원금, 신축기부금, 연구 및 연구소 기부금, 장학기부금)
강성석 강승하 강신혜 강용준 강종화 강태성 고영국 고윤우 고준상 김규태 김기용 김다희 김도담 김도훈 김동욱 김두환 김명진 김문아 김미라 김민유 김봉현 김병욱 김보현 김상곤 김성우 김어수 김영경 김영기 김옥지 김윤호 김의현 김인성 김일영 김재민 김재원 김정하 김정한 김종선 김종인 김주희 김준식 김지연 김진형 김진형 김철우 김철 김태용 김태형 김현규 김현규 김현주 김형식 김형중 김형후 김혜진 김효진 김희연 나비푸드 나영무 남은지 노은비 류동열 류동진 마경탁 문성진 박금화 박민정 박병일 박상훈 박선아 박성혁 박영목 박영식 박용범 박윤아 박일 박재민 박정탁 박정호 박제우 박주현 박준영 박지인 박진석 박찬 박해승 박한정 박홍준 반영수 방동식 배창환 백승 백승엽 백승재 백승학 부영준 서장현 석정호 손기동 손기혁 손석한 손은주 손홍석 송금순 송지현 송창민 송현직 신은아 신정철 신희진 안신기 안재은 안창수 양규현 양우익 양지훈 양혁진 연세본사랑병원 오동훈 오병호 오승준 오영국 오정탁 오한진 오현희 우찬명 원종윤 위성호 유수미 유순정 유승호 유지현 유희태 윤수영 윤용노 윤유상 윤혜성 이강석 이관호 이광현 이규호 이남선 이미경 이민 이민정 이민희 이상민 이상학 이수영 이승수 이승현 이연경 이영한 이원용 이유미 이정훈 이재연 이재정 이정석 이정준 이정표 이중희 이치영 이창일 이추자 이혁 이현숙 이혜연 임길채 임대혁 임성규 임성민 임준열 임찬영 장상호 장성구 장수아 장재원 장진구 전경현 전국정 전동녘 전지홍 전태주 정보람 정성일 정승원 정양기 정원석 정재욱 정주연 정지혜 정진성 정현택 제진호 조남훈 조미영 조민정 조민호 조선희 조수현 조순이 조은미 조철호 좌민홍 주진우 차경빈 차동수 천근아 천선희 최순임 최승준 최승희 최영준 최원준 최중혁 한금봉 한승경 한재욱 함석진 함익병 허준 허진묵 홍민기 홍사민 홍순기 홍종철 홍주의 홍준호 홍창의 홍현준 황성원

치과대학(발전기부금, 장학기부금)
김병욱 김선영 김성오 김수현 김윤호 김종태 김진 문원규 백석기 서병인 서유경 양순봉 연세꿈꾸는아이치과 우상엽 유준상 윤홍철 이동우 이성호 이언강 이영준 이장열 이혜원 임선아 장정호 정연욱 정영수 정휘동 조항래 차신정 채문희 최도영 최준언 치과대학 33회 동기회 치과대학 43회 동기회 황규용 황두연

간호대학(발전기부금, 장학기부금)
(주)이영주콜렉션 이경희 이숙정 조원정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발전기부금)
박현미 이희주 정우진 천지혜 한순욱 한휘종

세브란스병원(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원목실 헌금 및 후원금)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뉴글로벌해운 ADVITA FUND USA 강수연 공동모금-원목실 공지영 곽호철 권정현 권혁원 김규원 김다경 김상욱 김송희 김수진 김영곤 김예희 김윤홍 김은경 김인식 김정엽(고인) 김정주 김정훈 김지영 김태형 김현정 류휘만 맹승렬 박민재 박병섭 박상현 박성민 박아영 박언정 박지연 박효준 배은별 백소이 본관 트리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재린 성웅용 송다영 송보미 송성광 신금식 신동복 신동희 안민기 안용준 안종순 암병원 트리모금 양종근 엄지혜 오지선 우성진 우지윤 위진영 윤종화 이건민 이동석 이상원 이상준 이상철 이슬기 이승규 이유경 이은혜 이주미 이주연 이주영 이주희 이지연 이지은 이지혜 이차용 이춘호 이택규 이현수 이혜수 · 이지나 이홍철 임보미 임우영 임은경 임태연 장민 전선영 정경석 정다희 정유림 정윤희 정재균 정종한 정지은 정혜진 정효섭 조신제 조재선 종교교회 주호중 차외숙 최석순 최선우 최송미 최영락 최우진 최윤 최지훈 최진호 최형철 한국소아암재단 홍예준 황희경

강남세브란스병원(건축기부금, 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연구발전기부금, 의료선교후원금)
(주)샌드빅서전 강남 원목실 강동헌 강선영 강성민 강우기업(주) 강윤주 강진숙 강태성 공선순 공재철 공형석 권두환 권순자 금종윤 김경록 김경석 김경식 김경현 김권영 김기숙 김다영 김대중 김도현 김동규 김동현 김라희 김민기 김명균 김명신 김미희 김민균 김병규 김병무 김보미 김선호 김성태 김수광 김수연 김양안 김양자 김영균 김영상 김영섭 김용구 김용기 김원배 김유안 김유정 김지영 김정혜 김종민 김종하 김주현 김준수 김지혜 김지환 김지훈 김진수 김찬용 김철원 김충진 김태연 김호영 김효동 김효숙 김희정 김희진 남상구 노동조 노영채 노원주 노태규 문순임 문영일 문은희 문지미 박경민 박명자 박명화 박문규 박새람 박선영 박수진 박아영 박윤선 박윤희 박은하 박종인 박준성 박진옥 박진희 박찬우 박채수 박태현 박해선 박희영 방명환 배승남 배영미 배재옥 빈지원 서경민 성공제 성산교회 손경임 손태경 송민선 송용배 신용원 신은혜 신인철 신지선 신형진 심보라 심재용 안철민 양우선 양정윤 엄소연 염동진 염창환 우동호 유승호 유영주 윤경희 윤인식 윤재희 이기련 이동순 이명자 이문기 이미화 이민우 이분화 이성주 이성혜 이수천 이승헌 이시유 이애경 이양란 이영지 이옥순 이용식 이윤영 이은정 이장우 이재연 이정민 이종민 이창호 이철수 이철우 이충근 이태임 이홍재 임대혁 임성규 임성우 임재열 장미영, 박재웅 장미옥 장성구 장수빈 장재호 전대근 전수영 전용철 정기영 정광익 정기동 정대희 정명일 정주령 정주연 정지호 정철 정철오 조동희 조승현 조아라 조연진 조훈 주재열 진예림 진하준 채경아 천준영 최경태 최기욱 최성현 최소원 최수희 최승혜 최승호 최승호, 최솔 최윤영 최자영 최재남 최종혁 최준원 최홍식 최희원 클라리스파 하늘씨앗교회 허영란 한아린 허수창 허준 홍인경 홍정석 황경상 황인애 황혜진

용인세브란스병원(건축기부금, 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원목실 목회기금)
구지현 기수진 김광연 김루아 김예지 김은서 김지 김지호 김태양 김푸름 김혜연 분당지구촌교회 배롱전재주 서민정 신현미 신현주 아현중앙교회 안연옥 염호영 용인기톨릭등잔회 용인익명 용인주일예배헌금우지구 원가은 이상현 이성현 이수현 이예준 이인영 이중열 이혜정 임슬기 장성구 정종훈 정진유 최재석 필그림교회 한별 한인철

치과대학병원(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김유리 김현채 송제선 전우빈 정효정

연세암병원(발전기부금, 완화의료센터 후원금)
강민경 강병관 강선영 강성희 강연실 강정석 구기옥 김가영 김금실 김기세 김동준 김세연 김은경 김은하 김은혜 김재민 김정미 김지혜 김창무 김창호 김채현 김태은 김형민 김희진 노유원 박다현 박영욱 서예준 손채림 신찬숙 심난향 안지현 양희진 오연우 윤경희 윤명희 윤정아 이병훈 이상순 이상연 이선경 이소라 이인나 이영자 이제광 이현재 임정열 임현성 장혜영 저스트행 전상호 전혜영 정인혜 정해철 정호식 조영교 조종근 지인규 최선재 최유정 최윤수 하나님의사랑으로 한성준 한진우 황은지 황지현

재활병원(발전기부금, 장애인의료재활후원금, 장애인사회재활후원금)
(주)에어포유학원 김산하 김승혜 김태연 박창일 박천웅 유춘희 육근미 윤도웅 이원미 이지은 임성규 장성구 재활학교 교직원 정연수 진경련

심장혈관병원(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강정모 고종석 구본환 구철회 권순연 권지은 김명옥 김미진 김봉섭 김영선 김형수 김혜빈 박우현 배명일 배한수 백소이 서금순 서이준 소사라 송의석 송태선 심영재 심영훈 안형이 오효례 윤인자 은영표 이수민 이승일 이재한 임희철 전정희 정이암 정지연 조영은 진순자 하재옥 한이슬 홍성석

어린이병원(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BTSARMY BTSARMY HYUN DA SOM JHUNGJUENNYJINHEE KOIRALA SHREYA LAFAGE MATHILDE JULIETTE PAULETTE Marianne Cabbat SANAE KAMANO 강솔귤 강수정 강이란 강유진 강은영 강지수 강지은 강효영 고민영 고보현 고옥선 고은아 고은정 고효빈 곽지은 구세희 구소연 구정화 국다슬 권계령 권석임 권원좌 권이정 권초희 김가윤 김경림 김경민 김경혜 김경희 김규도 김나연 김나은 김다혜 김대현 김도연 김동순 김미란 김미미 김민경 김민재 김민정 김민주 김보건 김선신 김세진 김소연 김소영 김수민 김수진 김승현 김영경 김영림 김영준 김예림 김유민/김유안 김유진 김윤희 김은경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장미 김재원 김주예 김준연 김준희 김지우 · 김서우 김지은 김지혜 김지희 김진녕 김진아 김진주 김초록 김한순 김혁수 김현미 김현승 김현영 김현원 김혜림 김홍랑 김희진 나지혜 남지영 노경량 노연동 노혜린 라기호 류소연 류창욱 마윤미 문경림 문소연 문수빈 문유리 문혜영 민경희 박경희 박나린 박미선 박미숙 박서영 박선명 박선주 박세리 박소영 박소현 박신희 박아영 박영경 박은혜 박지영 박재임 박정식 박정영 박준한 박지수 박지헌 박지혜 박진주 박진희 박찬미 박초연 박현선 박현아 박현정 박현진 박혜란 박혜진 박희라 방윤지 배가희 배희숙 백가람 백지혜 백한솔 변희영 부승주 상아민 서예린 서은해 서혜선 성인경 성현진 성희경 손병학 송민경 송보배 송정아 송진영 송하연 송혜민 송희영 슈가 팬 신경희 신기현 신수정 신아영 신예원 신우진 신우진신상록,이나현신아진 가족 신우철 신재영 신천수 신혜현 심화선 안다래 안미란 안별님 안상준 안승현 안지빈 안초현 양다현 양명 양소담 어수경 엄가영 엄미화 여정희 여진 Oarmy 오경진 오민아 오혜진 오인경 오지섭 옥해연 우연희 원태경 원현정 유경휘 유민아 유석훈 유성혜 유소영 유승진 유인경 유혁재 유현덕 유현주 유효정 육성해 윤성준 윤소연 윤은경 윤은주 윤지아 윤호영 이경미 이경진 이근희 이기주 이미령 이미선 이미희 이상은 이상화 이선미 이선화 이소영 이소현 이송연 이승현 이신애 이영은 이영주 이영화 이영훈 이예슬 이용희 이유화 이윤정 이은미 이은영 이은정 이은혜 이은화 이재라 이정녀 이종남 이종헌 이지민 이지연 이지영 이지유 이진아 이하람 이한별 이현아 이현정 이혜빈 이혜지 임미정 임선민 임성민 임수연 임수진 임은영 임정은 임지선 장경화 장세희 장수연 장효덕 전상호 전성희 전은혜 정다예 정미희 정병호 정서린 정서진 정선 정성경 정성희 정순영 정아랑 정연희 정윤복 정윤실 정은미 정은주 정재희 정주연 정지원 정지은 정현주 정혜련 정효길 조미란 조민영 조민주 조성현 조수경 조승아 조윤형 조은영 조인혜 조홍래 주연숙 주영희 즐겁소 지임경 지현정 진기영 진선령 진주현 차은경 채명주 채아윤 천서영 최기영 최다운 최다희 최미덕 최아름 최여진 최영금 최우심 최유나 최유리 최유진 최윤지 최은예 최재원 최재현 최정원 최주희 최지현 최현솔 최혜영 추지희 추채린 하희정 한미경 한보람 한성민 한성희 한세희 한수지 한언정 한진미 함정선 허정연 홍선혜 홍수미 홍윤희 홍은아 홍은호 홍지연 홍혜영 황광희 황보준 황성균 황윤희 황지은

원목실 헌금 및 후원금
곽수산나 김은주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대문교회 염산교회 전효영 차정현

의료선교센터(발전기부금, 선교사 후원금, 의료선교후원금, 의료선교 교육기금)
(재)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재)대한예수교장로회 일산은혜교회유지재단 (재)성서침례교회 강남동산교회 강남비전교회 강신혜 강정현 개봉교회 고성훈 고양동산교회 곽수산나 광주겨자씨교회 김나희 김명진 김미경(박현중) 김상동 김성은 김수경 김용배 김의현 김인성 김재욱 김정호 김하일 김현영 김호택 나라엘 나오미 난곡제일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늘푸른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생명교회 동신교회 박성용 박윤선 박희정 베이직처치 분당지구촌교회 사랑의교회 상당교회 샘물교회 서울교회 서울남교회 서울은현교회 서울제일교회 선한목자교회 손기혁 송탄중앙침례교회 수색감리교회 수영로세계선교회 신생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선교부) 신전수 신촌중앙침례교회 아현감리교회 안강중앙교회 연대인사팀 연동세서 예능교회선교 예장영광교회 오륜교회 오지영 온사랑교회 와우리교회 왕성교회 우면동교회 우원기 유인석 윤경애 윤진숙 이경덕 이수정 이우현 이일학 이장훈 이제명 이종화 이한성 인천성산교회 임하성 장병식 장석교회 장위제일교회 전주아름다운교회 전주온누리선교회 주내힘교회 주안교회 즐거운교회 천안장로교회 최두재 최은창 충신교회 평안교회 평촌새중앙교회 필로 하재옥목사 행복나눔교회 허승곤 홍주의 홍현준

기고 | 박진용 의료선교센터 소장

에비슨의 꿈, 몽골에서 다시 피어나다

돌람수릉 교수(제6회 Avison Global Leadership Award 수상자)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등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직업이다. 하지만 이 직업들이 조선 땅에 처음 등장하던 순간을 떠올려본다. 세브란스병원이 문을 열었을 때 의료전문직은 하나같이 낯선 존재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낯선 사람은 간호사였을 것이다. 여성이 전문교육을 받고 집 밖으로 나와 낯선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어떻게 가르치고 길러낼 것인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정해야 했다.

세브란스에는 초창기부터 쉴즈를 비롯한 헌신적인 간호선교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에비슨 박사는 간호가치를 누구보다 일찍 알아보았다. 1910년 그가 쓴 보고서에는 세브란스가 이뤄야할 열가지 이상(理想)이 담겨있다. 그중 두가지가 간호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는 한국 여성을 간호사로 길러내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을 전문인력이자 교육자로 키워 전국에 간호교육을 퍼뜨리는 것이었다.

병원 하나 꾸려가기도 버거웠던 시절이다. 그런데도 에비슨은 그 너머를 보았다. 간호사를 키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간호사를 가르칠 사람까지 길러 내려했다. 배운사람이 다시 가르치고, 마침내 한국인이 스스로 의료와 교육을 일으키는 선순환을 꿈꾸었다. 그가 그린 것은 한세대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스스로 자라나는 생태계였다.

그 비전은 열매를 맺었다. 세브란스에서 시작된 간호교육은 오늘날 국제적인 교육·연구역량을 갖춘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으로 자랐다. 졸업생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의료선교사가 돼 몽골,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네팔, 말라위처럼 의료자원이 부족한 땅으로 떠났다. 그들은 그곳에서 간호교육 뼈대를 세우고 현지 교육자를 길러냈다.

그들이 남긴 가장 귀한 열매는 건물도 통계도 아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도 교육이 멈추지 않았고, 그 교육을 받은 이들이 다시 다음세대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열매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올해 제6회 Avison Global Leadership Award 수상자인 몽골의 돌람수릉(Dulam-suren) 교수<사진>다.

몽골에서 간호의 이름을 다시 쓰다

몽골 근대 간호제도는 1920년대 이후 (구)소련의 영향 아래 만들어졌다. 당시 간호사는 주로 의사 진료와 치료를 보조하는 사람이었다. 전문적인 간호 판단이나 환자중심 돌봄과는 거리가 있다.

이런 토양 위에 간호사 역할과 정체성을 새로 세우는 일은 만만치 않다. 교육과정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오랫동안 굳어진 의료인 인식과 관행까지 바꿔야하기 때문이다.

돌람수릉 교수는 바로 이 변혁 한복판에 서있다. 그와 연세 인연은 2017년 Avison International Fellowship에서 시작됐다. 이후 그는 연세대학교 간호대에서 이태화 교수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몽골 울란바타르국제대학교 부총장겸간호대학장으로 후학을 기르며 국제교육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140년을 건너 만난 개척자들

140여년 전 여러명의 간호선교사들과 에비슨박사는 조선에 간호사라는 낯선 전문직을 세우는 일에 뛰어들었다. 오늘 돌람수릉 교수는 몽골에서 간호사 역할과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일에 도전하고 있다. 시대도 무대도 다르지만, 교육으로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자기나라의 의료를 일으키게 한다는 꿈은 꼭 닮았다.

의료선교 성과는 치료한 환자나 세운 병원 수만으로 잴 수 없다. 더 오래가는 열매는 현지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도록 돕는데서 맺힌다. 그래서 이번 수상은 돌람수릉 교수 학문적 성취와 지도력을 축하하는 자리다. 동시에 에비슨 박사 교육비전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에비슨이 꿈 꾼 것은 간호사를 길러내는 일만이 아니었다. 간호사를 길러낼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다. 그 꿈이 지금 몽골의 돌람수릉 교수를 통해 다음 세대로 건너가고 있다.

온라인 직인관리전산화시스템 도입

의료기관 최초 온라인 운영
전 과정 전산화 이뤄

의료원이 3일 '직인관리전산화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그동안 수기로 처리해 온 직인 날인 신청과 기록 관리를 전산화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이번 시스템은 원내망 그룹웨어 업무시스템 메뉴 '직인관리 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하다. 날인할 문서와 원인행위 공문 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기관별 직인 관리부서 담당자가 검토해 승인하거나 보완을 요청한다. 검토 결과는 팀즈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다. 승인되면 신청자가 직인 위치를 직접 정해 날인하고 PDF 파일로 내려받는다. 여러 쪽에 걸쳐 같은 위치에 한 번에 날인하는 반복날인 기능도 탑재돼 있다.

전자 직인 시스템이 적용 안 된 기관 문서는 지금처럼 관리부서에서 수기로 날인받는다. 이때도 직인수기신청 메뉴에 기록을 남긴다. 이렇게 하면 온라인 날인과 수기 날인 이력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

1단계로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용인세브란스병원, 치과대학병원 등 주요 진료기관에 먼저 적용했다. 의료원 직번이 있는 교직원이 원내망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병원, 프레스코 원데이클래스 개최

환아·교직원 자녀 대상
전통 벽화 제작 체험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이 지난달 19일 4층 돌모루회의실에서 환아와 교직원 자녀 20명을 대상으로 '프레스코 원데이클래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브란스병원 아트스페이스 전시에 참여한 선우항 작가와 연계해 어린이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통 벽화 제작 기법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가 어린이들은 전문 작가로부터 프레스코와 전통 벽화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작가가 사전에 준비한 프레스코 작품에 직접 색을 입히고 마무리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입원 환아 보호자는 "평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귀한 수업을 듣고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어 좋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의료원은 각 병원 로비를 비롯해 내원객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성탄 조형물을 비치했다.